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 사례 연구*

오선주 (대전지족초등학교 / 교사)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의 자기 연구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자기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인 내가 교사인 나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 연구를 활용해 교사가 어떻게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시켰는지 그 사례를 공개하여 전문성 신장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자기 연구의 의의와 핵심 요소, 주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시적 자기 연구 사례와 공시적 자기 연구 사례를 기록하였다. 통시적 자기 연구는 연구자의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사 발령 전까지의 기간과 발령 이후 교사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 과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공시적 자기 연구에서는 수업이나 학생 등에 관한 연구자의 신념이나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C교대 예비 교사 50명을 비판적 동료로 삼아 연구자의 수업 동영상을 텍스트로 제공하고 수업 비평문을 받았다. 예비 교사 수업 비평문을 ‘조하리의 창’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고, 소제목을 달아 비평문의 일부와 연구자의 생각을 담았다.

연구자의 자기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기 연구를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교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교사 자신의 교육적 감식안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와 동료 교사의 교육적 감식안을 키워주는 확장적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예비 교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교육프로그램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문성 신장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주제어 : 자기 연구, 자기 성장, 사례 연구, 공시적·통시적 자기 연구, 신념, 정체성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교사전문성과 학교문화 전공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연구자로서 A는 10년차 교사다. 10년차 교사는 교직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몇 년간 A 안에서 머무르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들이 이 논문의 첫 꼭지를 써 내려가게 했고, A는 이 논문을 통해 A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해 가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법은 몇 가지 한계점이 보인다. 첫째, 필수 이수 연수 등 외부적인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교사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장학지도에서 실시하는 수업협의회는 아직까지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기보다 장학사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교사 자기연찬의 전형적인 형태인 연수는 전달 연수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셋째,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이야기하는 경험은 강제적으로라도 그 기회가 제공되지만,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는 일은 거의 없고 그 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수업을 비롯한 교육 실천은 교사의 자기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이혁규 외(2012)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기 수업을 개선하려면 왜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수업하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신념이나 가치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성찰이 없이는 수업을 비롯한 교육 실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연구자 A는 이 논문에서 교사로서 살아온 10년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어떤 신념을 지니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성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로서의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업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에 자기연구자로서 자신의 시각에 예비 교사들의 시각을 더한 수업 비평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기를 성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과제 1. 교사로서 ‘나’는 누구인가?

연구 과제 2. 교사 자신이 주체적으로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과제 3. 교사로서 ‘나의 연구’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가. 연구 자료 및 방법

연구 과제 1, 2

연구자료	연구방법	비고 (연구 결과 및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교육 생애사 ■ 교사 공동체 활동 	통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자기 연구	정체성,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교사 수업 비평문 	공시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협력 연구	수업 방법, 학생에 대한 인식

연구 과제 3

연구자료	연구방법	비고 (연구 결과 및 파급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과제 1, 2의 결과 	(미래)실험검증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선

나. 세부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자기 연구를 통한 연구로, 연구의 주체이자 연구의 대상이 동일한 연구이다. 개인적인 교육 경험을 개인사적 자기 연구를 통해 드러내었고, 수업 동영상을 공개하여 자기 성찰을 위한 텍스트(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비판적 동료(예비 교사)의 수업 비평문을 활용하였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 주체도 교사로서 ‘나’이며, 연구 대상도 교사로서 ‘나’라는 점이다. 이렇게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이 동일할 경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구분 가능하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또 논문은 공적인 글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대한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윤희(2014)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표현하였고, 이희용(2007)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의 주체와 연구의 대상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에, 연구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사를 ‘객관적 거리두기’를 위해 ‘교사 A’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 연구의 의의

‘교사는 교사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교사가 된다.’¹⁾라는 말이 있다. 교사가 되고 나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많은 연수를 들으며 자기연찬에 힘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까지의 방법을 통한 자기계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기 연구는 교사로서의 자기를 텍스트로 삼아 연구함으로써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것이다.

2. 자기 연구의 핵심 요소

Samaras(2014)에서는 20년에 이르는 자기 연구 학자들의 연구물을 정리하여 자기 연구의 5대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자기 연구는 ‘자기(self)’에서 출발한다.

둘째, 자기 연구는 ‘자기(self)’에서 출발하지만 비판적인 협동 탐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자기 연구를 통해 교사는 교사 자신과 자신의 수업에 대해 탐구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기 자신과 수업, 학생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넷째, 자기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는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판적 동료들의 생각이나 질문, 비판 등을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섯째, 자기 연구의 연구결과물은 시작은 개인적이었으나 논문 공개, 출판 등으로 공개함으로써 타인에게도 유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기 연구의 주요 방법

Samaras는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기 연구」에서 6가지의 자기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 손우정, 배움의 공동체, 해냄, 2012, p. 85

- | | |
|----------------------|----------------|
| 1. 발전적 포트폴리오 (자기 연구) | 2. 개인사적 자기 연구 |
| 3. 실천적 교육 이론 | 4. 집단적 자기 연구 |
| 5. 예술기반 자기 연구 | 6. 기억 활동 자기 연구 |

자기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러한데, 정작 현장 교사 입장에서 자기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드물다. 자기가 스스로를 파고들어 연구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운 까닭도 있지만, 비판적 동료를 구하는 문제도 여러 현실적인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교사 A는 본 연구를 통해 자기 연구에서의 교사 A의 교육 관련 생애사가 현재 교사 A의 교육적 신념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수업 비평을 통한 자기 수업 읽기가 당사자적 실천 지식(personal knowledge)의 구성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자기 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된 당사자적 실천 지식을 공개-공유하여 공동체의 지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기 연구는 교사 A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한다. 교사 A의 연구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연구 방법은 개인사적 자기 연구와 집단적 자기 연구 두 가지로,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Ⅲ. 통시적 자기 연구

1. 개인사적 자기 연구

교사는 자신이 배운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사 A는 학창시절에 만난 교사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개인사적 자기 연구를 통해 반추해 보고자 한다. 수업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 신념과 관점,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교사 A가 어떻게 그러한 교육 철학들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자신의 교육경험에 대한 역사를 드러내야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²⁾ 단, 교사 A의 첫 교육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교사 발령 전으로 한다.

2) 김병수, 초등교사의 국어 수업에 대한 교육생애사 이야기, 새국어교육 제92호, 2012, p. 69.

가. 초등학교 : 관계와 소통의 시작

비가 오던 3월 2일 ‘학교’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딘 나는, 학교 운동장의 천막 아래에서 내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서성이던 와중에 선생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셨고, 내 이름 석 자가 적힌 명찰을 달아주셨다.

‘학교’와 ‘선생님’. 교사 A에게는 모두 익숙한 단어이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라는 이름을 처음 가지는 아이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은 않다. 교사 A에게 ‘학교’라는 낯선 곳에서 ‘선생님’이라는 분과의 만남은, 비 내리는 차가운 날씨가 무색하게 너무나도 따뜻했다.

A교사는 아이들의 첫 만남에 고민이 많다. 삶에서의 만남은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만나느냐, 즉 첫인상에 따라 그 대상과 원활히 소통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 실린 수업은 ‘꿈 너머 꿈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아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삶과의 첫 만남을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녹였다.

나. 중학교 : 함께 읽는 그 즐거움

중학교 시절의 첫 담임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다. 이 분과의 만남은 나의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각별한 만남으로 기억된다.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기억에 남는다. 교실에 동그렇게 둘러 앉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 내 생각을 정리했던 시간은 *함께 읽는 즐거움*을 처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 책은 혼자 읽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아침 자습시간이 독서시간이었고, 교실은 조용했으며, 각자의 책상에서 책 한 권씩을 들고 있는 장면은 당시 중학생이었던 A에게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읽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처음 맛보게 되었다.

함께 책을 읽었던 경험은 지금도 교사 A의 수업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C교대 예비 교사들에게 공개한 수업처럼 교과서 외에 다양한 텍스트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그 중 하나다.

다. 고등학교 : 기대와 격려

고등학교 1학년의 첫 시험은 그간 받았던 성적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대부분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의 도움으로 예습을 철저히 해온 서부에서 온 학생들의 성적이 상위

권을 차지했다.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내 성적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따로 부르셔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동부와 서부의 차이에 관해 언급하시며 기말고사부터는 그런 차이들이 사라진다는 경향성을 말씀해주셨다. 덕분에 힘을 얻어서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고, 중간고사와 같은 성적을 면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교사가 믿는 만큼 자란다. 교사 A가 작년에 이어 아이들에게 유난히 많이 들었던 말은 “망쳤어.”이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다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이 말을 많이 사용했다. 그럴 때 마다 교사 A는 내가 받았던 격려의 힘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도 힘을 불어 넣는다.

교사가 스스로 자기 교육생애사를 통해 지나온 경험을 반추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지금의 교사 A가 교실에 서있는 모습을 만들어 낸 영향력을 찾고, 그간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두고 교사 A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앞으로 만날 아이들 앞에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그 시절을 깊이 떠올려보면 교사 A가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것은 그분들이 삶과 사람을 학생을 대하는 태도였다. 그 기저에는 존중, 열정, 배려 등의 가치가 깔려 있었고, 듀이가 “경험을 통한 삶의 태도 형성”이라고 말했듯,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순간순간에 수업시간에 보여주지는 가치와 태도들로 직·간접적으로 삶을 경험했으며 어느새 교사 A는 자기 자신이 만났던 선생님들과 같은 길을 가고자 꿈꾸었다.

라. 대학교 : 교사를 향한 꿈

기대를 품고 입학한 H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마치 고등학교의 연장선과 다름없었다. 초등학교의 교과목에 따라 과가 나뉘어 있었으며, 과별 인원이 균등하게 정해져 있었다. 배우는 내용 역시 과목별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였고, 시간표도 정해져 있었다.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양과목이었는데 그나마도 수가 한정되어 있었다. 교사가 되고 나서 A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 하나, 수업을 보는 눈(관점, 교육적 감식안 등). 둘, 주제가 무엇이든 아이들과 깊이 있게 논의되도록 이끌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셋,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사 A 자신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갖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과 중심 체제의 교대 교육과정은 위의 세 가지 자질을 갖추기에 한계를 가진다.

2. 교사 공동체 속의 자기 연구

가. 대전배움의공동체연구회와 계절학교 : 교육 철학 세우기

1) 연구회의 목적과 철학

‘대전배움의공동체연구회’는 배움의 공동체 철학(민주성, 공공성, 탁월성)을 바탕으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 디자인 및 동료장학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회 활동

- 수업임상연구 ■ 주제 탐구 및 연수 ■ 독서 토론 ■ 계절학교 운영

3) 교사로서의 성장과 배움

교사 A가 연구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교사로서 교실에 설 때, 철학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배움의 공동체의 바탕 철학인 민주성, 공공성, 탁월성을 교사로서 꾸준히 가지고 갈 교육 철학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나.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사전문성과 학교문화

1) 입학 계기

교사 A는 평소 아이들의 수준 차가 큰 수학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H대학교의 초등수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첫 수업 후, 배우고 싶은 것을 대학원 과정을 통해 얻기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고민 끝에 며칠 만에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다.

학기가 새로 시작하고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 게시물을 확인하던 중, C교대 대학원에서 ‘교사 전문성과 학교문화 전공’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았다. 전공과의 목표를 보니 교사 A가 원하는 배움을 이 과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2) 교육 목표

교사전문성과 학교문화 전공은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신장시키고 학교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 비평,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대안적 수업 모델 탐구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실행 연구를 경험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실행 연구 경험을 사례 연구로 발전시켜 논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교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3) 교사로서의 성장과 배움

교사 A가 대학원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동료 교사이다. 대학원 동기는 총 6명으로 2년간 함께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학교문화, 교실문화, 수업, 학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대화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다.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모임 : 철학을 실천으로 구현하기

1) 모임의 목적과 기본 철학

친단교는 아德勒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실천 연구회로써 학급긍정훈육법(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 이하 PDC)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여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로 성장하도록 상호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2) 연구회 활동

- 2016년 2월~2017년 1월 : PDC의 다양한 활동 실습
- 2017년 2월~11월 : 「아德勒와 함께 하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 함께 읽으며 논의

3) 교사로서의 성장과 배움

친단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큰 성장은 아德勒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 A의 경우, 배움의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민주성을 수업에서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PDC를 통해 민주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라. J 수업 친구 : 단위학교 교사공동체

1) 모임의 목적

교사 A가 근무하는 J초등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한 열정으로 ‘J 수업 친구’라는 연구회가 만들어졌다. J 수업 친구가 위의 세 공동체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단위학교 안에서 만들어진 자생적 연구회라는 것이다.

2) 연구회 활동

자발적 회원 가입으로 이루어진 J 수업 친구는 매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졌으며, 수업을 공개하고 싶은 교사가 사전협의회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수업 외에도 학급긍정

3)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모임,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모임 정관, 2016, p. 1.

훈육법 관련 책을 함께 보며 현재 학급에서 자신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3) 교사로서의 성장과 배움

J 수업 친구에 모인 선생님들은 기꺼이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여 개선하고 싶어 했고, 수업협의 회에서는 공격적인 모습 없이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며 의견 개진이 매우 활발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공동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각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으면 학교의 상황, 아이들, 학교 문화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아이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비판적 동료 탐구 모임

1) 모임의 목적과 방법

교사 A는 자기 연구 연구 초기, 연구 주제 찾기 과정부터 비판적 동료 집단을 구성하여 논의하였다. 자기 연구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므로 비판적 동료는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 A 스스로 수업에서 자신은 이런 모습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다른 교사의 시각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2) 비판적 동료와의 연구

비판적 동료와의 연구는 Samaras(2012)를 참고하여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표1〉 비판적 동료 탐구 모임 일자 및 내용

진행 날짜	주요 내용
2016.3.14.	비판적 동료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정하기
2016.3.20.	자기 연구 연구자에 대한 소개 편지 쓰고 전달하기
2016.3.25.	프로토콜1.1 나는 궁금하다 작성하기
2016.3.30.	1차 모임. 자기 연구 교사의 정체성 중 수업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2016.4.15.	프로토콜4.1 나의 연구 초점을 담아 비판적 동료에게 편지쓰기
2016.4.20.	2차 모임. 연구 초점에 대한 논의
2016.5.8.	프로토콜4.2 실행계획 및 자료탐색과 연구 틀 잡기(1차)
2016.5.11.	3차 모임.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
2016.5.22.	프로토콜4.3 실행계획 및 자료탐색과 연구 틀 잡기(2차)
2016.6.8.	4차 모임. 연구 초점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

3) 교사로서의 성장과 배움

교사 A는 자기 연구 과제의 방향, 내용과 과정 등을 비판적 동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비판적 동료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근거 자료 조언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또한 교사 A가 연구 문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명확하고 어떤 점은 불명확한지 연구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지 등도 논리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을 얻었다.

교육연구원 비판적 동료 교사들과의 모임은 4차로 종료되었다. 까닭은 첫째, 교사 A의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과 모호함으로 세부적 진행이 어려워 연구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Samaras(2012)의 프로토콜을 따라 진행하다보니 프로토콜 몇 가지가 겹치는 것도 있었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거나 세부적인 논의를 끌여가기에 제한적인 면도 있었다. 셋째, 교육연구원 교사들은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아쉬움은 남지만 연구 초반에 비판적 동료의 역할이 어떠하면 좋을지에 대한 배움을 얻은 경험이었다.

IV. 공시적 자기 연구

1. 자기 수업 이야기

자기 수업 이야기에 앞서, 연구를 진행한 교사 A의 기본 정보를 논문에 밝히고자 한다. 그 까닭은 같은 10년차 교사라 해도 교직 경험이 매우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근무지역 : 광역시 ■ 근무학교 규모 : 28~32학급
- 교육경력 : 10년 ■ 근무학교 : 2개교
- 부장경력 : 없음 ■ 수업 비평 대회 참가 : 2회
- 담임경력 : 3학년(1년), 4학년(4년), 5학년(2년), 6학년(3년)

가. 수업 개관

- 수업 대상 : J초등학교 4학년 0반(남 13명, 여 12명)
- 수업 일시 : 2016. 9. 29.(목) 5교시
- 수업 교과 : 국어 ■ 수업 단원 : 4-1-나. 10. 감동을 표현해요

- 성취 기준 : 국1456-1.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주제 : 시를 읽고, 나를 표현하는 시를 써 보자.
- 본 수업 흐름
 -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읽기
 - 나에게 어울리는 식물 찾기
 - 시 바꾸어 쓰기

나. 수업자 고민

본 수업에서는 작품을 읽고 모방시를 쓴다. 많은 시를 읽고, 시가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익히고, 시를 써보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바꾸어 써보는 걸까? 모방시 쓰기는 왜 할까? 모방시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의술, 법률, 사업, 기술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이다. 시를 읊고 시를 이해하며 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종국적으로는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시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라 할 때, 그 과정의 하나로 모방시 쓰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다. 수업 과정

교사 A는 C교대 교육연구원 수업 비평시스템에 수업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위에 제시한 수업 개관과 수업자의 고민, 수업의 전 과정이 기록된 전사(全寫)⁴⁾ 자료도 공유하였다.

2. 수업 비평 사례 분석들

자기 연구에서 교사 A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그 수업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반성적 텍스트’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교사 A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C교대 S교수님을 통해 예비 교사에게 수업 비평문을 부탁하였다. 동료 교사가 아닌 예비 교사의 비평문을 활용한 까닭은 첫째, 수업 비평문을 쓰는 사람이 ‘수업 비평’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둘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나 치우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와 ‘지레 짐작’에서

4) 이혁규, 수업 비평의 방법과 활용 : 자진적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벗, 2014, pp. 156~157. 전사는 현장 작업에서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을 추후 분석을 위해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받아 적는 것을 뜻한다.

벗어나기 위함이다. 셋째, 현장 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예비 교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비 교사 수업 비평문을 활용하였지만 현장 교사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장 교사는 고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등의 한계는 있다.

수업 비평문의 4가지 관점은 심영택(2014)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교사 A는 수업 비평문 분석과 해석을 위한 틀로 ‘조하리의 창’을 활용하였다.⁵⁾ 조하리의 창은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Joseph Luft와 Harry Ingham이 개발한 것으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유용한 틀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표2〉 조하리의 창

	자신이 아는 부분	자신이 모르는 부분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	I. 열린 창 (Open area)	II. 보이지 않는 창 (Blind area)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III. 숨겨진 창 (Hidden area)	IV. 미지의 창 (Unknown area)

교사 A는 이 틀을 적용하여, 교사 A의 수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I. 열린 창 : 예비 교사와 교사 A가 모두 파악하고 있는 부분
- II. 보이지 않는 창 : 교사 A가 몰랐지만 예비 교사가 읽어낸 부분
- III. 숨겨진 창 : 예비 교사의 비평과 다르게 교사 A가 수업에서 의도했던 부분
- IV. 미지의 창 : 교사 A와 예비 교사 모두 해결하지 못한 교육적 난제 부분

5) 교사 A가 수업 비평문의 4가지 관점으로 수업 비평문을 재해석하지 않은 까닭은 본 연구가 자기 연구를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 A의 수업 동영상을 예비 교사 독자들은 4가지 관점으로 읽었고, 그들의 비평문을 교사 A 독자가 조하리의 창을 통해 읽었다.

3. 자기 수업 비평에 대한 이해와 해석

가. 교사로서 ‘열린 나’의 모습(I. 열린 창)

■ 배움과 삶의 연결

「꿈 너머 꿈」 프로젝트는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와 친구를 통해 바라보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나와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수업 장면 중 학생 대화(수업 전사록 중 일부)

학생(현숙) : 나는 그리고 그늘. 애들이 뭐 속상한 게 있으면 내가 편안하게 실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오징어.

학생(윤경) : 왜?

학생(현숙) : 내가 오징어를 좋아하고 내 성이 ‘오’야. 오씨야. 그러가지고 오징어를 별명이 오징어였으면 좋겠어. 하하하. ...그걸 생각해서 날 고려해줘. 자 끝.

학생(윤경) : 너는 꼭 하나의 해바라기 같아. 왜냐면 너는 그늘을 했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크잖아 다른 꽃보다. 그것처럼 그늘 같고, 또 해바라기는 활짝 웃고 어 그리고 되게 크고 예뻐서. 너도 예쁘고 크고 그래서 그래서 해바라기야 너는.

모방 시 쓰기 수업은 ‘나’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이었다. 꿈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다른 친구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예평 196)

위의 예평19에서 매우 정확하게 그를 짚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A는 학생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통해 타인의 눈을 통해 자아탐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배움은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삶’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움과 삶을 연결시키고 삶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교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나. 교사로서 ‘눈먼 나’의 모습(II. 보이지 않는 창)

■ 대화 중심 작문 지도 모형 : 새로운 교수법으로 교사 A의 수업 들여다보기

6) ‘예비 교사 수업 비평문’을 편의상 줄여 쓴 말로, 예비 교사 수업 비평문 19번임.(이하 동일)

예비 교사 비평문을 통해 수업에 대해 소통하는 것의 좋은 점은 이론과 실제와의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점이다. 교사 A도 예비 교사 시절, 많은 이론들을 공부했지만 막상 수업을 하면서는 다양한 이론들은 지도안을 작성할 때만 들여다 볼 뿐이었다. 새로운 수업 모형도 나오고 새로운 지도 방법도 나오는데 현직에 근무하며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다음의 두 비평문을 통해 ‘대화 중심 작문 지도 모형’을 알게 되었다.

전개단계에서 오선주 교사는 앞서 읽은 시를 모방하여 나만의 시를 쓰는 결과중심 접근법으로 큰 틀을 잡되, 각 과정은 대화중심 작문 지도법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대화중심 작문 활동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교사는 시범을 보이며 설명하였고(예평27)

조정원(2002)에 의하면, 대화 중심의 작문 지도는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 작용과 학습자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 작용,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내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작문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

교사 A의 수업 과정이 대화 중심 작문 지도 모형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자신의 작문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점에서 큰 흐름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과 이어지는 시 쓰기 과정에서 내적 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 예측된다.

다. 교사로서 ‘숨기는 나’의 모습(Ⅲ. 숨겨진 창)

■ 수업의 도입 부분에 대한 오해와 이해

수업 장면 중 대화(수업 전사록 중 일부)

교사 : 오늘 국어수업은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는 시로 한 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같이 봐야 되니까 빠르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1,2,3,4,5,6,여섯 줄 앉아주세요.

교사 : 거기 좁으면 책상 약간만 뒤로 밀어요.(손짓)

교사 : 보이나요? / 학생들 : 네. / 교사 : 일어설까요? / 학생들 : 아니요.

교사 : 그럼 시작 할게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학생 : 잘 안보여요. (교사 일어섬) ~~~받쳐주세요.(교사가 책 아래쪽을 손으로 받침)

읽기 중 상호작용 부분에 관해서는 살짝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될 만한 큰 부분은 아니었지만 수업이 대체로 정적인데 도입부분에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이끌어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평5)

흔히들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무언가로 동기유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 A 역시, 초임교사 시절에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이유는 교사의 수업 평가

기준안에 ‘수업 도입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였는가?’를 점수로 평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수업 도입 부분에서는 무언가 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대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예평5의 일부를 해석해보자면,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정적이기 때문에 수업의 도입에서 흥미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로 읽힌다. 수업의 초입에서의 ‘동기유발’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할 대목이다. 수업 시작 5분은 중요하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이 5분을 통해 발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림책 읽어주기’가 동기유발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 그 이전에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낼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교사 A의 판단은 ‘아니다.’이다. 그림책을 가까이 보고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만나는 전 과정이 모두 ‘흥미롭게’ 다가갔을 것이라 짐작해본다. 이후에 진행된 수업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제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라. 교사로서 ‘미지의 나’의 모습(IV. 미지의 창)

■ ‘개입’과 ‘지원’ 사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입과 지원의 뜻은, ‘개입’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여 든다는 뜻이며, ‘지원’은 지지하여 돕는다는 뜻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가이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 여기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내용이 반영된,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예평21)

만약 교사의 개입으로 활동을 끊고, 학습이 부족하게 된 부분을 보충 설명해주었다더라면 적절한 놀임표 사용이었을 것 같다. (예평7)

교사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끼어들어야 하는지는 온전히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딜레마는 그것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지원’이 될 수도 어떤 때는 ‘개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어른에게서 받으면 ‘개입’이지만 또래 학생에게서 받으면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교사 A는 학생들이 주춤거릴 때마다 지원과 개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사 A에게 주어질 과제이기도 하다.

V.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 연구의 교육적 의미와 제언

1. 개인적 성장

자기 연구는 그 자체로 연구자 본인에게 성장의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자기 연구와 관련한 책들을 읽다보면 ‘신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는 교사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좌절하고 발전하는 힘들이 결국은 교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기 연구를 통해 교사 A는 교사 A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신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신념이 현재 교사 A의 수업에 어떻게, 얼마나 투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통시적 자기 연구와 공시적 자기 연구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을 통해 교사 A가 교육 공동체 안에서의 배움을 얼마나 내면화하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2. 전문적 성장

자기 연구는 교사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개인으로 귀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 교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교사 A 역시 교직에서 몇 개의 교육 공동체에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집단 지성의 힘은 교사 A의 자기 성찰적 감식안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교사들 각자의 교육적 감식안을 키움으로써 교사 전반의 교육적 감식안을 키우는 확장적 성격을 띤다.

특히 본 연구에서 교사 A는 예비 교사의 수업 비평문을 통한 성장을 기술하였다. 비판적 동료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객관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자기 연구가 다른 연구방법론과 차별되는 점이다. 비록 오고가는 담화가 아닌데서 오는 한계는 있었지만, 교사 A는 수업 비평문과 재비평을 통해 교사 A의 수업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교사 A는 ‘재구조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3.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교사가 자기 연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사 A는 연구 과제의 하나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 사례를 연구하면서 교사 A는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첫째, 현장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연수는 모노로그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주체로 배우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연구는 현재의 이런 연수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발적으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교대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 현직 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교생 실습’기간이 전부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 비평문을 통한 대화를 추천한다.

셋째, 교대 교육과정의 개선이다. 자기 연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변화와 개선의 폭과 깊이가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교사 A의 경우, 예비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경험을 하였다. 이론과 실천은 상보적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줄 때 교사의 실천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교육과정에 실습 외에 예비 교사와 현장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지금의 교대 교육과정으로는 현 시대와 미래 사회가 기대하는 교사 역량을 길러내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의 비중을 줄이고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거나 교육 철학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등의 교육과정을 넣어 보완하기를 제안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교사 A가 자기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 과제를 명시하였으며,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자기 연구의 의의와 핵심 요소, 주요 방법을 살펴보았다. III장은 통시적 자기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V장은 공시적 자기 연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 A의 수업을 예비 교사 50명에게 공개하고 수업 비평문을 받았다.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얻는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의미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공유가 절실하다. 교사가 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자기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는 문화는 겪어본 적이 없다. 교사 A도 자기 연구의 다양한 방법 중 몇 가지를 통해 교사 전문성 신장에 시사점을 던지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사례들이 모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문화, 수업 문화를 바꾸어 내기를 기대해본다.

※ 논문 투고일: 2018. 8. 14. ※ 논문 수정일: 2018. 8. 27. ※ 게재 확정일 : 2018. 8. 30.

참고문헌

- 김난희, *동질집단과 이질집단간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협동학습의 효과-프로그래밍 교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5
- 김병수, *초등교사의 국어 수업에 대한 교육생애사 이야기*, 새국어교육 제92호, 2012
- 김병수, *자기 연구를 통한 수업전문성 발달 과정*, 교육연구 제64집, 2015
- 박현정, *‘낯설게 하기’ 쓰기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0권 30호, 2006
- 손우정, *배움의 공동체*, 해냄, 2012
- 송은미 외, *초등학생이 기억하는 수업*, 초등교육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4
- 서경혜, *교사학습공동체*, 학지사, 2015
- 승광은, *나는 어떻게 교사로 성장했는가*, 울림, 2017
- 심영택, *수업 비평의 이론과 실제 중 수업 비평적 담화 방법의 원리 탐색*, 교육공동체 벗, 2014
- 심영택, *수업 비평적 글쓰기 방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9집, 2010
- 오윤숙, *소집단 협동학습에서 성격유형별 집단구성방법이 수학적 태도 및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성민, *초등학생의 교실침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수정,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의미 고찰*, 교육철학연구 제36권 제2호, 2014
- 이윤희, *교사의 자기 연구(self-study)를 통한 국어과 수업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4
- 이혁규, *교과 교육 현상의 질적 연구*, 학지사, 2005
- 이혁규 외, *교사의 자기연구 필요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18권 2호, 2012
- 이혁규, *수업 비평의 방법과 활용 : 자전적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벗, 2014
- 이희용,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성장 체험 -자기 이야기(self-narrative)*, 교육인류학연구 제10권 2호, 2007
- 정재찬, *국어 수업 비평론*, 국어교육학연구 제25집, 2006
- 조경원, *대화 중심 작문 지도의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2
- 조광희 외, *과학교육 연구에서 자기 연구의 특징과 가능성 탐색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36권 3호, 2016
- 최숙희, *너는 어떤 씨앗이니?*, 책읽는곰, 2013
-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모임,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 모임 정관*, 2016
- 국어과 교육과정*, ncic.go.kr(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 2학기 국어 나*, 교육부
- 사토마나부,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개정판)*, 에듀니티, 2016
- Anastasia Samaras,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기 연구*, 우리학교, 2014
- Anastasia Samaras & Anne Freese, *교육과 셀프 연구*, 대한미디어, 2012
- Joseph P. McDonald 외(심영택 외 옮김),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 도서출판 하우, 2017
- Parker J. palmer, *가르칠 수 있는 용기(증보판)*, 한문화, 2012

<Abstract>

Self-Growth Case Study as a Teacher

Oh Sun ju (Daejeon Jijok Elementary School / teac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elf-study as a wa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a teacher by releasing the self-study case of a researcher.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eachers are trying to improve their individual expertise through self-study, training courses, guidan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and participation in learning commun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made out of external force, and that guidance and training are not so effective. Most of all, teachers do not study 'himself/herself as a teacher' and there is no guidance about how to d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the teachers who are concerned about the growth of professionalism by showing the cases how a teacher has improved her expertise through self-study.

To do this,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as follows. First, I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self-study, key elements, and major methods. Secondly, I recorded diachronic self-study case and synchronic self-study case. The diachronic self-study was divided into two parts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researcher's identity as a teacher was formed : from the period of elementary school till the period just before being a teacher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growth in the teacher community. In order to understand how the researcher's beliefs and identity are revealed in the classroom or to the students in the informal self-study, 50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of C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elped the synchronic self-study as critical colleagues in art, social practice, technology. The preliminary teachers' criticism of the researcher's class was analyzed based on Johari's Window and the part of the criticism and the thought of the researcher were included with subtitle.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er's self-study are as follows. The point of this study, which began as a ques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 was to find my identity as a teacher and the self-study was used as the method. The process of experiencing a self-study can provide an experience of growth that clearly sees the teacher's own identity. In addition, it is not only able to raise the teacher 's own educational sensibility, but also has an expanding character that fosters the educational sensibility of pre-teachers and fellow teachers. Finally, it is possible to propose a different method of professional growth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and teacher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self-study, self-growth, case study, diachronic self-study case, synchronic self-study case, professionalism, identity